

“인간의 패역과 하나님의 자비”

■ 이종윤 원로목사

인간의 극에 달한 악인의 패역상을 보고 한 시인이 탄식을 금치 못한다. 저들의 안중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오히려 자기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벌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거기에 자기 마음에 아첨하는 ‘자궁’까지 했다.

창조주께서는 지혜와 선을 말하는 도구로 사람에게 입을 지어 주셨건만, 저들 악인은 그 입을 악과 거짓을 토하는 분화구로 악용하고 있었고, 낮에 악을 행한 사람도 밤에 침상에 들게 되면 자신을 반성하고 과오를 뉘우치는 수가 있는 법이거늘, 저들 악인은 참회는커녕 저들의 침상을 더 큰 악을 계획하는 온상으로 삼고 있었다. 저들은 외부로부터의 유혹에 의해 피동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좋아하여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다. 더구나 방관할 수 없는 일은 저들은 이러한 패역한 생각과 행동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삭이며 총동하여 저들의 동조자를 점차 확산시켜 간다는 사실이다. 안하무인적인 악인의 배신과 패역상을 보고 개탄함을 금치 못했던 시인은 주님의 존귀한 품성을 상기하며 찬양을 마지않는다. 악이 극에 달한 세상에서도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을 신망하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복이다. 시인은 여호와와의 인자와 성실에 감탄한다.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악인의 패역을 초월하여 주의 인자가 존재하다는 뜻이고,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는 말은 인간의 불성실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와는 그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다.

시인은 계속하여 여호와와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찬송한다. “공의가 산과 같다”는 말은 여호와와의 공의의 견고성과 위엄성, 불변성과 부동성을 나타내고, “판단이 바다와 같다”는 말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여호와와의 심판의 깊이와 신비함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여호와와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짐승도 보호하시고, 짐승도 필요한 것만 아니라 불필요해 보이는 것까지도 보호하신다. 하물며 인간이라!

여호와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균등하게 분배하시고, 공기를 고루 할당하시며, 우로를 차별 없이 내리신다. 배불리 먹고 충분히 마시며, 벌써 멸절되었어야 할 인간들이 오늘날까지 생존함도 바로 이 까닭이다.

악을 선으로 착각하는 자들의 세계관과 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의 세계관을 말한 시인은 결론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의인의 필연적인 기원을 들을 수 있고 시인은 여기서 두 가지를 기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주의 백성들이 억울한 회생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과 의인이 의인으로 대접받는 사회라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오만한 악인들의 불손과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다. 악인의 재기가 허용되지 않는 시대라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심판에 대한 생각을 꺼리는 이유가 그 심판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날을 우리는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심판날에 구원받는 이나 형벌받는 이의 정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각각 다를 것이다. 두로와 시돈의 심판이 고라신과 벤세다가 받을 심판보다 건디기 쉬운 것이라 하셨다. 소돔의 형벌이 가버나움의 받을 벌보다 가벼울 것이라 하셨다. 두로 시돈 소돔의 백성들은 악한 자로 형벌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을 듣고 믿지 않는 이들이 받을 형벌보다는 쉬운 것이다. 심판날에 형벌에 차등이 있다. 가장 악한 죄는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행한 것을 기록한 책들에 따라 공평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구원도 간신히 불 가운데서 구출 받은 룻과 같은 이의 구원도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그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내게 전가되어 정죄하는 심판 없이 자비의 구원을 얻는다.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돌리자!

-한국장로신문 [제 1606호] 2018년 8월 11일 발채-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맥추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 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 수요일부 예배, 새벽기도회는 본당에서, 수요일 2부 예배는 웨민홀에서 드립니다.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대면예배로 드리며, 영·유아부, 유치부, 사랑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 방역, 교인확인 및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기존과 같이 1층 현관 앞 또는 지하주차장 주차 시 지하1층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0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704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역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벨기에),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진경·황경혜(말리우),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세리,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리우), 이재물·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Tel.558-1106 / Fax.558-210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seoulchurch.or.kr/

“ 한 밤의 찬미 ”

■ **행 16:25-34**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 감사드리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초실절로 부르기도 하고, 거두어들이 곡식 단을 흔들며 제사드린다 하여 요제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하여 아직 광야생활을 하고 있을 때, 농사짓고 열매를 거두는 일은 구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어떤 의미에서 미완성의 자리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실 인생은 모든 면에서 미완성의 실존입니다. 사도 바울도 잡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며 지금도 뜻대 향해 달려가는 도상의 존재가 자기의 실존이라고 고백했습니다.(빌 3:12-14) 이처럼 인생은 'Being on the way, 도상의 존재'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미완성의 삶을 안타깝고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재촉하십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옥어곡절 끝에 두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아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가 환상 중에 나타난 마케도나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호소를 듣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1. 충동하는 전도자들
 바울은 이곳 빌립보에 디모데, 실라, 누가 등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사도들이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첫 전도지에서 사도들은 점차 귀신들린 여자 한 사람을 고쳐준 것 때문에 현지인들과 시비가 생겨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리스에는 신탁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신탁들은 개인의 일상사에서부터 도시 전체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신의 허락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신탁의 메시지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기도로 점차 귀신이 쫓겨나가자 헬라의 다신교적 신탁 문화와 사도들의 유일신 신앙에서 나오는 기독교적 문화가 서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문화적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용할 것과 거부해야 할 것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마 5:37)고 하셨습니다. 긍정할 것은 확실히 긍정하고 부정할 것은 확실히 거절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인간을 귀신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악습과 미신적인 귀신 문화에 대하여 예수 이름으로 저항했습니다. 강력한 반발을 예상했고 안전의 위협을 느꼈지만 성령님께 순종했고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2. 한 밤의 찬미
 이 충돌은 바울과 실라 두 사도에게 엄청난 고난을 불러왔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들어서도 행해서도 안 될 악습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신앙적 회의와 불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한 일이었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순종이었지만 결과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깊은 밤에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밤이란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말합니다. 모든 일이 행통하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 부르는 찬송보다 절망과 근심의 자리에서 부르는 찬송은 훨씬 더 눈물겹고 은혜가 됩니다. 더구나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한밤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은 감사드릴 순간이며 찬송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감사하고, 의의 자리에 있으니 찬송하고, 하늘 아버지 인정하시는 길을 걸었으니 기뻐할 뿐입니다.

3. 한 밤의 찬송을 들으시는 주님
 두 사도가 한 밤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속박했던 사슬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26절) 그러나 옥문보다 더 큰 문들이 열렸는데 곧 복음전도의 문, 즉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신비한 광경에 놀란 간수가 사도들 옆에 엎드려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 화급한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간수의 온 가족은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도의 고난의 밤을 통해 빌립보에서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빌립보교회가 형성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이후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최고의 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빌립보교회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한밤중에 불렀던 찬송이 만든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과 현실 역사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고 모든 것이 미완성입니다. 아쉽고 미흡하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부족한 것뿐인 미완의 현상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의 문을 여시는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하인선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요 4:2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44(시 100)...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42(11)...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행 16:25-34...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 헌, 맥추감사헌금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한 밤의 찬미”...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06(464)...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양예배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118:1 인 도 자
 찬 송 14(30) 다 합 께
 기 도 이준호 집사
 성 경 수 8:1-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다시 도전하는 이스라엘” ... 설 교 자
 * 찬 송 435(492)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서명철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I부: 장호림 권사 II부: 박길자 권사
 성 경 수 8:30-3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축복과 저주 사이”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모임

1. 정기당회 / 7일(수) 오후 5시 402호

알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이번주 심방 일정
6-2~3, 10-3~4, 14-6~7다락방
- 새가족 등록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층 안내데스크에서 예배 전, 후로 새가족부에서 등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3. 맥추감사절

7월 첫주일(4일)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했던 성찬예식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에 따라 성도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함께하는 영적 체험을 각자 가지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장례

- 故 정홍근 성도(6교구 정선경 집사의 부친, 이명섭 성도의 장인) / 7월1일(목) 별세, 3일(토) 발인
- 故 이남복 권사(5교구 김혜연 집사의 모친, 박은영 피택권사의 시모) / 7월1일(목) 별세, 5일(월)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488명	565명	2,053명	472명	2,439명



의인 열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열 사람이 없어 결국 망하고 말았다.

대통령만 되면 당장 나라를 고쳐 놓겠다는 명의 같은 이들이 이 나라에 몇 사람 있지 만 그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키재기나 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상대방을 묻고 찢어서 야욕을 채우겠다면 그런 지도자는 도태시켜야 한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남의 허물을 캐내어 악한 자도 만들고 거기에 오물이라도 뿌려 악취가 난다고 비난했으니 누가 당선이 되어 통치권을 쥐게 된다 해도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되기는 쉽지 않게 되었다.

위기에 처한 조국을 누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겸손과 정직,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의인 열 사람이 필요한 때다.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나설 수 있는가 반문해 보자.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결유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시다.

에너지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일성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한방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행 16:25)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I부	은 빛	박래경	안효주	홍혜란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안효주	조현정				